

생 수는 48만9천210여명이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33개가 있다.

문화 문화로 흥하고 흥나는 대구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나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2대 시민정신(국채보상운동, 2·2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전시민이 함께하는 '대구시민 주간'을 추진하고,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거리공연 확대, 문화공간 확충 등 시민참여·체감형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 생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발전소 주변 예술 창작공간 조성하고 신진·청년예술가 육성지원으로 청년예술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대구예술창작촌 건립 등 장기 사업구상을 통해 예술창작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 2020년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1천만 명을 목표로 민선 20년인 2015년을 대구관광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내용으로는 대구 관광 체질개선을 위한 대구만의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대구가 가진 매력을 잘 살린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세계 관광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 오른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대구와 영남권 각각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과 공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근대골목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데 이어 방천시장 김광석길, 마비정 누리길 등 제 2, 제3의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추진한다. 안지랑 곱창골목의 음식테마 거리 선정에 이어 동인동 짬갈비골목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음식 테마거리 선정도 추진하고 있다.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여건을 만들기 위해 장·단기별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재창조하고 관광객 1천 만명 달성을 위한 대구관광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체육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스포츠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 서비스 운영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전국 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의 준비 등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만4천석 규모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건립, 북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구 사격장 클레이 사격시설 교체를 완료하고 시민운동장 주 경기장 리모델링 등 생활 체육 수요를 반영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과학·기술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한 국뇌연구원 건립(2014년 12월 준공)과 신정부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된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5세계물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 장〉 이동희

〈부의장〉 김의식, 정순천

〈정당별 의석〉 새누리당 29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남부권 신흥항 유치 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 축제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2015년도 시의회는 정례회 2회 59일간, 임시회 6회 77일간으로 총 8회 136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회기 내에 8회 21명이 28건의 시정질문과 14회 21명이 4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인천광역시

道花 : 장미 市鳥 : 두루미

市木 : 목백합

시청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장 : 유정복(劉正福)



개관

연혁 인천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문학산, 계양산 등에서 발견된 각종 석기류로 보아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 학익동, 주안동, 문학동 등에 지석묘(支石墓)가 분포되어 있어 청동기시대에는 부족세력이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상으로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誌) 등에 의하면 인천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에 속해 미추홀(彌鄒忽)이었으며, 고구려시대에는 매소홀현(賈小忽縣)이 설치됐다.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됐고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6년(757년)에 소성현(邵城縣)으로 개칭되어 울진군의 영토가 됐다.

고려시대에는 소성현이 수주(樹州)에 속했다가 숙종(1096~1105년)조에 모후 인예태후의 출생지라 해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 승격해 인종조(1122~46년)에 모후 출생지라 해 인주(仁州)로 다시 승격됐으며 공양왕 2년(1390년)에 칠대어향(七代御鄉)이라 해 경원부(慶源府)로 승격 개칭됐다.

조선조 들어 태조 원년(1392년)에 경원부가 인주로 환원됐다

가 태종 13년(1413년)에 인천군으로 다시 격하됐는데 세조 6년(1460년)에 이르러 세종비 소헌왕후의 외항이라 해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로 승격되어 말기까지 이어졌다.

고종 32년(1895년) 지방관제의 개정에 따라 전국을 23부로 나누자 인천은 인천부(仁川府)로 개편되고 건양 원년(1896년)에 다시 경기도 인천부가 됐으며 1910년 주권을 상실하자 조선 총독부 관제에 의한 부(府)가 됐고 부세확장에 따라 부평(富平)의 대부분을 포함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천부는 시(市)로 개칭되고 1981년 김포군 계양면, 옹진군, 영종면·용유면 등이 편입됐고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다.

면적·행정구역 1995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경기도 강화군 전역과 대부분을 제외한 옹진군 전역,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됐으며, 2016년 1월 1일 현재 총 면적은 1천47.87km²로 남한면적의 1%가 되고, 8구 2군, 149개 읍·면·동, 4천235개 통·리, 2만2천255개 반이다.

재정

2016년 예산규모는 2015년(11조4천813억원) 대비 6천704억원(5.84%) 증가한 12조1천517억원으로 시 8조1천902억원, 자치군·구 3조9천615억원이다.

인천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	인구(명)
합 계	1,047.87	1,154,004	2,983,484
중 구	133.46	51,240	118,781
동 구	7.19	30,371	73,531
남 구	24.84	171,888	412,207
연 수 구	49.07	115,920	325,755
남 동 구	57.03	208,231	543,899
부 평 구	32	217,217	565,972
계 양 구	45.57	127,063	337,448
서 구	115.18	190,119	516,335
강 화 군	411.44	30,703	68,413
옹 진 군	172.09	11,252	21,143

※ 외국인 수 : 5만7천669명(인구수에 포함)

201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액	증감률(%)
인천광역시	121,517	114,813	6,704	5.84
본청	81,902	77,646	4,256	5.48
일반회계	58,573	49,774	8,799	17.68
특별회계	23,329	27,872	△4,543	△16.30
자치군·구	39,615	37,167	2,448	6.59
일반회계	37,829	35,567	2,262	6.36
특별회계	1,786	1,600	186	11.63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당초	구성비(%)	최종	당초	증감률(%)	최종	증감률(%)	
총 계	81,902	100.00	77,646	100.00	92,094	4,256	5.48	△10,192	△11.07	
세입	지방세수입	29,581	36.12	26,665	34.34	29,459	2,916	10.94	122	0.41
	세외수입	17,398	21.24	12,866	16.57	20,825	4,532	35.22	△3,427	△16.46
	경상적 세외수입	9,834	12.01	9,496	12.23	10,063	338	3.56	△229	△2.28
	임시적 세외수입	7,564	9.24	3,370	4.34	10,762	4,194	124.45	△3,198	△29.72
	지방교부세	4,500	5.49	2,923	3.76	4,593	1,577	53.95	△93	△2.02
	국고보조금	19,357	23.63	19,485	25.10	19,949	△128	△0.66	△592	△2.97
	지방채	1,662	2.03	8,745	11.26	8,863	△7,083	△80.99	△7,201	△81.2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04	11.48	6,962	8.97	8,405	2,442	35.08	999	11.89
세출	일반공공행정	15,271	18.65	9,693	12.48	19,479	5,578	57.55	△4,208	△21.60
	공공질서 및 안전	1,224	1.49	442	0.57	541	782	176.92	683	126.25
	교육	6,293	7.68	5,522	7.11	7,258	771	13.96	△965	△13.30
	문화 및 관광	3,868	4.72	7,695	9.91	7,686	△3,827	△49.73	△3,818	△49.67
	환경보호	5,285	6.45	5,100	6.57	5,921	185	3.63	△636	△10.74
	사회복지	22,209	27.12	21,193	27.29	21,354	1,016	4.79	855	4.00
	보건	386	0.47	294	0.38	1,015	92	31.29	△629	△61.97
	농림해양수산	1,096	1.34	1,028	1.32	1,071	68	6.61	25	2.33
	산업·중소기업	549	0.67	665	0.86	658	△116	△17.44	△109	△16.57
	수송및교통	11,080	13.53	11,831	15.24	11,727	△751	△6.35	△647	△5.52
	국토 및 지역개발	8,264	10.09	8,085	10.41	9,661	179	2.21	△1,397	△14.46
	과학기술	485	0.59	439	0.57	438	46	10.48	47	10.73
예비비	584	0.71	518	0.67	223	66	12.74	361	161.88	
기타	5,308	6.48	5,141	6.62	5,062	167	3.25	246	4.86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015년 대비 82.07% 증가한 1조2천240억원이고, 사회복지 분야가 4.43% 증가한 1조9천4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6% 증가한 1천96억원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5년 대비 5.71% 증가한 6천877억원이고, 과학기술 분야는 10.35% 증가한 485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 2018년 재정 '정상'단계로 전환을 추진전략 목표로 해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중 2016년은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로 계획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7천173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해 채무규모를 축소,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군·구 조정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시정수행에 차질 없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양질의 중앙정부지원금 확보에 노력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및 고금리 차환에 따른 이자절감에 힘쓰고자 한다. 지방세제 구조개선 노력과 세원 확대를 위해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등 신세원 발굴에도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발굴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고자 한다.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 각종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결정해 가시적인 해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매립지 사용종료 기본원칙에 맞게 대응하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제3연륙교는 조기건설을 위해 시에서 기본설계를 우선 추진해 최적의 건설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내와의 정상화 합의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하며 검단신도시는 '검단 새빛도시'로 새롭게 추진되고 도화구역 뉴스테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기타 원도심 지역에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 인천만의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구현을 위해 문학산성 정상부를 2단계 사업을 완료해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개방토록 하고 강화역사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등으로 역사문화 공간을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가치재창조 비전선포·행정구역(자치구) 명칭변경 등을 추진해 인천인 중심의 가치를 재창조코자 한다.

작약도, 강화 역사문화 둘레길, 세어도 자연생태 등 인천의 역사·문화·생태자원 등이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섬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만의 매력을 찾고자 할 것이다. 근대 개항지, 강화도, 소래포구, 연안부두 등을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인천형 철도망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경부고속철도와 수인선을 연결해 인천발 KTX를 조기 실현하고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서울구간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및 경인전철 지하화 구상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KTX)연계 경인전

철 지하화를 추진하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사와 전통을 살린 원도심 개발 '전국 최초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도시경제재생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국가핵심시설과 지역자산을 연계한 경제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근대문화자산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창조적으로 복원코자 하며 강화, 서운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부평·주안 등 노후산업 구조 고도화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산업

공업 인천은 항만, 공항 등 기업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1969년 10월에 부평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세워진데 이어 주안산업단지, 남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3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1971년 1월에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인천산업단지, 하점지방산업단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청라지구 산업단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가 각각 조성되어 7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운영되는 등 총 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강화일반산업단지과 서운일반산업단지, IP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산업단지에는 모두 9천620개 사업장에 16만2천822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천지역 총 1만1천457개의 공장에 21만3천294명의 종업원들이 금속, 기계, 전자, 전기, 화학, 목재 등의 제품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상업 2015년 말 현재 백화점 5개소, 쇼핑센터 10개소, 대형마트 26개소, 전문점 5개소, SSM 87개소 등 총 138개소의 대규모 점포 및 SSM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83개소, 농산물도매시장 2개소의 유통시설이 있다.

사회

주택 2015년도 민간부문 1만5천45호, 공공부문 5천432호를 포함, 총 2만477호가 준공됐다. 2015년 말 인천시 주택 수는 단독주택 22만3천31호, 아파트 56만2천630호, 연립 2만7천499호, 다세대 21만7천945호 등 총 103만8천615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교통 2015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35만5천207대로 2014년 말 124만7천485대에 비해 10만7천722대가 늘어 8.6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13만338대, 승합차 5만7천812대, 화물차 17만8천489대, 특수차 5천5백68대로 분포돼 있다.

보건·후생 의료시설은 총 3천8개소로 종합병원 19, 병원 57, 의원 1천433, 치과 병·의원 828, 한방 병·의원 610, 요양 병원 61개소이며, 이밖에 약국 1천42, 한약국 22, 도매상 72, 약업사 3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체 1천292개소가 있다.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 2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333개소 등 360개소에 9천491명을 보호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140, 법인 11, 법인외 20, 민간 어린이집 84, 직장어린이집 51, 부모협동 어린이집 6, 가정어린이집 1천236개소 등 총 2천278개소가 있다.

교육·문화

교육 대학원 4, 대학교 12(본교 4, 대학분교 4, 외국대학분교 4), 전문대학 4, 고등학교 123, 특수학교 7, 중학교 134, 초등학교 243, 유치원 413, 기타학교 10개교 등이 있다.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75점(국보 1, 보물 28, 사적 18, 천연기념물 14, 중요무형문화재 6, 명승 1, 등록문화재 7), 시 지정 문화재 177점(유형문화재 58, 기념물 65, 무형문화재 27, 민속자료 2, 문화재 자료 25) 총 252점이 있다.

관광 관광자원으로는 관광단지 2개소(송도, 강화종합리조트), 관광지 2개소(마니산, 서포리), 관광특구 1개소(월미관광특구), 유원지 3개소(송도, 작약도, 계산) 등이 있고,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568개소, 관광숙박업 88개소, 관광이용시설업 26개소, 국제회의업 14개소, 카지노 1개소, 유원시설업 39개소, 관광편의시설업 178개소가 있다.

문화행사 신년음악회(1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수도 인천(연중), 인천의 근대건축물 종이모형展(1~12월), 인천광역시 사진대전(5월), 화도진축제(5월), 인천광역시서예대전(6월), 인천의 고성 계양산성 특별전(7~11월), '인천, 근대의 시간을 달리다' 기획특별전(8~10월), 인천페타포트음악축제(8월),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9월), <광복 70주년 특별전-사할린 한인전>(9~12월), 제5회 인천한류관광콘서트(10월), 월미평화축제(10월), 삼랑성역사문화축제(10월),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10월), 부평풍물축제(10월), 소래포구축제(10월), 인천광역시미술대전(10월), 전국제물포사진대전(11월), 송년제야의밤문화관광축제(12월), 인천시립극단 공연, 시립합창단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통공연 및 전시(연중), 인천도호부 전통무대 상설화(연중), 일요전통예술 공연 '얼쑤'(연중), 인천도호부대제(10월),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작품전시(연중), 박물관 축제(10월)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됐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노경수

<부의장> 박승희, 이용범

<정당별 의원> 새누리당 24, 더불어민주당 11명이 있다.

주요 의정활동 2015년도 회기는 22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28회 제2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66일), 임시회 6회(62일) 등 총 8회에 걸쳐 128일간 회기를 운영, 조례안 등 3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대 의회에서는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시정의 주요 정책 또는 현안사항 등과 관련 전문가와 시

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등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 토론회·공청회 개최 2회, 간담회 개최 20회 및 현장방문을 59회 실시했다. 또한, 진정처리(78건), 의원요구자료(443회 628건)를 처리했다.

시 본청 및 교육청, 시 산하 공사, 공단 등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503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업무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외국도시 의회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해 의회 위상을 높이는 등 상호 이해의 폭과 이익 증진을 위해 7개국 11개 도시 의회와 우호교류협정 또는 의향서를 교환, 양 도시 의회 간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외국 선진도시 의회와 20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

道花 : 철쭉

市鳥 : 비둘기

市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빛돌이

시청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시장 : 윤장현(尹壯鉉)



개관

연혁 광주에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마한시대로 추측되고 옛 지명은 무진주이다. 삼국시대 백제 군현은 147개소로 광주 지역은 직할 3현을 통치했다. 견훤은 무진주를 점거하고 부근 군현을 빼앗아 완산주에 진군해 도읍을 삼고 후백제왕이라 칭했다.

마한시대에서부터 후삼국까지는 무진주로 불렸으나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33년에 무주를 광주로 개칭해 도독부를 뒀다. 성종의 개혁으로 전남을 해양도라 했으며 도호부를 안남(현재 영암)에 설치했고 광주에는 자사를 뒀다.

조선시대 전라도에는 좌·우도가 있었는데 광주는 좌도에 속했다. 세종 12년 목을 주로 강등해 무진군이라 개칭, 문종 원년에 복칭, 성종 20년 광산현으로 강등, 연산군 7년에 복호됐으며, 이후에도 현으로 강등됐다가 복호되는 사례가 있었다.

1893년 전국이 13도로 조정됨에 따라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할되면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됐다. 1910년 광주면, 1931년 광주읍, 1935년 광주부로 일제 강점기를 보냈고 1931년 광주읍으로 승격시켰다가 1935년에는 광주부로 고쳤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광주시로 바뀌어 관할 구역은 214.92km²로 6개 출장소와 45개 동이 구성됐다.

1986년 11월 부산·대구·인천에 이어 네 번째 직할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 면적은 215.11km², 3구 72개 동으로 구성,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됨으로써 면적은 501.20km²로 늘